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3, No. 128, pp.1-51
<https://doi.org/10.29212/mh.2023..128.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460~480년대 新羅의 對高句麗 전쟁과 강원 영서지역 진출

고창민 | 한성백제박물관 교육홍보과 연구원

- 목 차
1. 서론
 2. 고구려의 悉直城 공격과 신라의 泥河城 축조
 3. 炤知 麻立干대 對고구려 방어와 횡성·홍천 진출 시도
가. 481년 고구려의 신라 침공 루트
나. 신라 호산성의 위치와 489년 호산성 전투의 의미
 4. 결론

초 록 460~480년 고구려, 신라의 강원도 영서, 동해안 지역의 전투들을 분석하는 것에 집중했다. 당시의 전쟁에 대해서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나왔지만 정선-삼척 지역의 연결을 기본으로 두거나, 489년 전쟁에 등장한 과현, 호산성에 대한 위치 비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등이 있었다.

정선, 삼척, 강릉 지역을 살펴보고 강릉-정선 지역으로의 이동이

삼척-정선으로의 이동보다 원활했음을 지형, 고려·조선시대 역참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이를 통해 당시 신라가 강릉을 시작으로 남한강을 따라 정선, 영월지역에 진출을 시도했다고 보았다. 또한 고구려가 481년 신라를 공격한 이동로를 동해안 루트였다고 파악했다. 이 전쟁에서 고구려가 패하면서 강원도 지역에서 지배력이 약화되었다.

489년 고구려가 공격한 호산성을 사료와 고고학 자료를 바탕으로 흥천으로 추정하였다. 횡성에서 5세기말 신라 토기가 나온 점, 모로성이 평창 모로현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481년 전쟁으로 고구려의 강원도 지역 영향력이 약화되자 신라가 대관령 이서 지역으로도 진출을 시도했다고 보았다. 신라의 이러한 진출로 춘천-흥천-원주 이동로의 지배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고구려가 과현과 호산성을 공격해 점령했다. 이 지역에서 군사 활동을 지속하기에는 지형, 교통로의 문제가 있었기에 신라는 더 이상 진출하지 않았다.

신라가 남한강 유역뿐만 아니라 강릉 이서의 평창-횡성 지역으로의 진출을 꾀했다는 것은 5세기 말부터 강원도 지역의 지배 관계, 정세에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향후 신라의 강원도 지역 진출에 대해서 고민해볼 여지들이 있다.

주제어 : 신라, 고구려, 전쟁, 5세기, 강원도, 동해안, 흥천, 니하(泥河), 호산성(狐山城)

(원고투고일 : 2023. 7. 6, 심사수정일 : 2023. 8. 18, 게재확정일 : 2023. 8. 29.)

1. 서 론

新羅는 高句麗 廣開土王의 남정을 계기로 5세기 초중반까지 고구려 간섭 아래에 놓여있었다. 신라는 訥祗 麻立干代이 즉위 하면서 이러한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시도하였고, 결과적으로 5세기 중반부터는 관계 청산을 넘어 고구려와 적대 관계를 구축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신라는 고구려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많은 축성을 진행하고, 百濟와 동맹을 맺어 고구려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신라의 태도에 대해 고구려는 신라의 복면, 실직성을 공격하면서 신라를 압박하였다. 특히 長壽王 63년(475) 고구려가 백제의 漢城을 점령한 후에는 신라에 대한 공세 횡수가 더욱 증가하고 공세 방향 역시 다양해졌다. 5세기 초반까지 고구려, 백제 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전쟁 양상이 5세기 중후반부터는 고구려-백제·신라로 다각화된 것이다.

5세기 중후반 고구려-신라의 전쟁 양상에 대한 연구는 양국의 경계에 대한 문제,¹⁾ 주요 충돌 지역이었던 泥河, 牛山城 지명 비정²⁾ 등의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전되었다. 당시의 육

- 1) 김정배, 「高句麗와 新羅의 영역문제 -順興地域의 考古學 자료와 관련하여-, 『한국사연구』 61·62, 1988 ; 이도학, 「新羅의 北進經路에 관한 新考察-, 『경주사학』 6, 1987 ; 정운용, 「5世紀 高句麗勢力圈의 南下-, 『사충』 35, 1989 ; 박경철, 「中原文化圈의 歷史的 展開 -그 地政學的·戰略的 位相 變化를 中心으로-, 『선사와 고대』 15, 2000 ; 김현숙, 「4~6세기경 小白山脈 以東地域의 領域向方 - 『三國史記』 地理志의 慶北地域 高句麗郡縣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26, 2002 ; 강중훈, 「5세기 후반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선,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경문화사, 2008.
- 2) 서병국, 「新唐書渤海傳所載 泥河의 再檢討-, 『동국사학』 1516, 1981 ; 김택균, 「東濊考-江陵 濊國說과 관련하여-, 『강원문화연구』 16, 1997 ; 양태진, 「高句麗 嶺土 연구 -三國史記를 중심으로-, 『군사』 18, 1989, 31~32쪽 ; 김진한, 「6世紀 前半 高句麗의 政局動向과 對外關係-, 『군사』 64, 2007 ; 홍영호, 「三國史記 所載 泥河의 위치 비정-, 『한국사연구』 150, 2010 ; 『新羅의 何瑟羅 經營 研究-, 경인문화사, 2016.

상 교통로, 전쟁의 전체 양상과 역학 관계를 분석한 연구,³⁾ 薩水 벌판 전투와 같은 특정 지역의 전투를 분석한 연구⁴⁾도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문헌 자료, 고고 자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양국의 전투 지역, 신라의 축성 지역 등을 더욱 명확하게 하려는 연구들도 있다.⁵⁾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5세기 중후반 고구려-신라의 전쟁 양상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다만 선행 연구들에서 몇 가지 미흡한 부분을 찾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당시 강릉, 정선, 삼척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다. 당시의 정선 지역이 강릉과 연계성이 강하다고 유추할 수 있는 여러 기록이 있음에도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지도상 정선-삼척 간 거리의 가까움 때문에 두 지역의 연계성을 중시하면서 연구를 진행했다. 두 번째는 당시의 지명 비정에 대한 여러 연구가 나왔음에도 아직 그럴듯한 비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지명이 있다는 점이다. 炤知 麻立干 11년(489) 10월 기사에 등장하는 狐山城이 그러한 지명이다. 호산성이 당시 신라의 북쪽 경계 근처였기에 이 지명의 위치를 추정하지 못한 것은 더욱 아쉽다. 필자는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연구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3)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학연문화사, 1999 ; 장창은, 「新羅慈悲~炤智王代築城交戰地域의 검토와 그 의미」, 『신라사학보』 2, 2002 ; 『신라 상고기 정치 변동과 고구려 관계』, 신서원, 2008 ; 『고구려 남방 진출사』, 경인문화사, 2014 ; 이명식, 「5세기 新羅의 對高句麗關係」, 『대구사학』 69, 2002, 박성현, 「5~6세기 고구려·신라의 경계와 그 양상」, 『역사와 현실』 82, 2011 ; 강민식, 「5세기 후반 삼국의 전투와 대치선」, 『군사』 87, 2013 ; 김병남, 「496년 고구려의 우산성 공격 의미와 나제의 대응」, 『전북사학』 56, 2019.

4) 강민식, 「5세기 후반 錦江 유역을 둘러싼 三國의 동향」, 『한국고대사탐구』 6, 2010 ; 전병우, 「494년 薩水 벌판 戰鬪과 政勢變化」, 『진단학보』 134, 2020.

5) 윤성호, 「新羅의 漢江流域領域化過程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7 ; 「5세기 중후반 신라 소지마립간대의 대고구려관계」, 『한국학논총』 51, 2019a ; 「5세기 중후반 신라의 소백산맥 이서 지역 진출」, 『전북사학』 55, 2019b ; 장창은, 『삼국시대 전쟁과 국경』, 온샘, 2020.

다만 文咨明王대부터 고구려의 주요 공격지역이 薩水 주변으로 바뀌는 양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490년대 이후의 전쟁은 468~489년까지 전쟁과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해야 한다. 또한 484년 고구려의 毋山城 공격은 慈悲·소지 마립간대의 축성과 관련해서 소백산맥 이서 지역 진출과 연관시키고 있어 전투들의 성격에서 다른 면이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장수왕 사망 전까지 고구려-신라의 전쟁 중 특히 강원 영서·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전투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468년 고구려·말갈의 실직성 공격과 같은 해 신라의 니하성 축성 기록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이를 위해서 두 사건과 큰 연관성이 있는 강릉, 정선, 삼척 사이의 지역적 연결성을 분석하도록 하겠다. 5세기 중후반 3개 지역 사이의 연결성이 단순히 지리적 가까움만을 가지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당시 고구려의 정선-삼척 루트를 통한 공격이 신라에 끼친 영향과 그에 따른 대응 방식의 의미를 파악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소지 마립간시기 고구려의 對신라 공세 상황에 대해서 분석할 것이다. 우선 고구려의 481년 공격에 대해서 지형 분석을 중심으로 파악해보겠다. 다음으로는 소지 마립간 11년(489) 고구려가 공격한 호산성의 위치를 비정해보고자 한다. 호산성의 명칭과 관련한 문헌 자료, 고고 자료를 함께 고려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당시 신라의 강원 영서 지역 진출에 대해서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2. 고구려의 悉直城 공격과 신라의 泥河城 축조

앞서 서술하였듯이 신라는 놀지 마립간 시기부터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백제와의 관계 개선을 시도했다. 이러한 외교 관계의 변화 과정에서 놀지 마립간 34년(450)에 何瑟羅城 城主가 고구려의 邊將을 죽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⁶⁾ 이 사건은 당시 신라가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일련의 행동을 꾀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해당 사건 직후부터 고구려-신라의 관계가 전쟁 상태로 돌입한 것은 아니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 『三國史記』 高句麗本紀를 살펴보면 사건 이후 고구려와 신라의 대응을 찾아볼 수 있다. 고구려본기의 기사에서 고구려는 장수왕이 노하여 군사를 일으켰고, 신라 측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해서 사죄했다고 전한다.⁷⁾

『삼국사기』를 살펴보면 이 사건 이후부터 신라에 대한 고구려의 공격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또한 『日本書紀』에는 이 무렵 신라가 고구려 군사 100명을 주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⁸⁾ 기존에는 이 사건의 연대로 남아있는 464년을 그대로 과신하였

6) 『삼국사기』 권3, 新羅本紀3 놀지 마립간 34년(450) 7월. 三十四年, 秋七月, 高句麗邊將獵於悉直之原, 何瑟羅城主三直出兵, 掩殺之. 麗王聞之怒, 使來告曰, 孤與大王修好至歡也, 今出兵殺我邊將, 是何義耶. 乃興師侵我西邊. 王卑辭謝之, 乃歸.

7)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장수왕 28년(440). 二十八年, 新羅人襲殺邊將. 王怒, 將舉兵討之, 羅王遣使謝罪, 乃止.

8) 『일본서기』 권14, 雄略天皇 8년(464) 2월. 大懼中國之心, 脩好於高麗. 由是, 高麗王遣精兵一百人守新羅. 有頃, 高麗軍士一人, 取假歸國, 時以新羅人爲典馬(典馬此云于麻柯比). 而顧謂之曰, 汝國爲吾國所破非久矣(一本云 汝國果成吾土非久矣). 其典馬聞之, 陽患其腹, 退而在後, 遂逃入國, 說其所語. 於是, 新羅王乃知高麗僞守, 遣使馳告國人曰, 人殺家內所養鷄之雄者. 國人知意, 盡殺國內所有高麗人.

다. 하지만 이 기록의 연대를 그대로 과신하면 놀지 마립간 39년(455)에 고구려, 백제의 전쟁이 벌어지자 신라가 구원해주었다는 기록과⁹⁾ 상충되어 모순이 발생한다. 이 기록을 맹신한다면 455년에 왕경과 주요 요충지에 고구려 군사가 주둔한 상황에서 신라가 백제에 구원군을 파견했다고 분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록을 455년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¹⁰⁾ 그렇다면 고구려 변장 살해, 고구려 군사 주살, 놀지 마립간 38년(454) 고구려의 신라 북변 공격¹¹⁾이라는 3가지 사건이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¹²⁾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450년대 이후 고구려와 신라는 완전한 적대 관계를 형성하였다. 다만 양국의 군사 충돌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자비 마립간대인 460년대 후반부터였다.

9)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놀지 마립간 39년(455) 10월. 三十九年, 冬十月, 高句麗侵百濟, 王遣兵救之.

10) 장창은, 앞의 책, 2014, 88~89쪽.

11)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놀지 마립간 38년(454) 8월. 八月, 高句麗侵北邊. 高句麗本紀 권6에서는 長壽王 42년(454) 7월 초로 기록하고 있다. 본기 각각의 전승이 달라서 발생한 오류거나(전덕재, 『삼국사기 본기의 원전과 편찬』, 주류성 2018, 337~338) 본서 찬자의 실수에 따른 오류로 볼 수도 있다(정호섭,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4~5세기의 기록에 대한 검토』, 『신라문화』 38, 2011, 45). 본 고에서는 앞서 놀지 마립간 34년(450) 7월 기록도 「신라본기」가 원전일거라는 견해(임기환, 「고구려본기 전거 자료의 계통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2, 2006, 36~44쪽; 정호섭, 위의 논문, 2011, 45쪽; 전덕재, 위의 책, 2018, 337~338쪽)들을 따라서 이 기록도 신라본기의 기록을 따랐다.

12) 이러한 추정을 바탕으로 『일본서기』의 기록을 놀지 마립간 37년(453) 7월 기록(秋七月, 羆狼入始林)과 연관지어 453년으로 특정 짓는 주장도 있다(장창은, 앞의 책, 2014, 90쪽). 하지만 『일본서기』의 기록이 455년 이전으로 보는 것이 이미 정황상의 추정인데, 이에 더해 추가적인 추정을 하여 시기를 명확히 단정 짓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A-1. 11년 봄 고구려가 말갈과 더불어 북쪽 변경의 悉直城을 습격하였다.¹³⁾

A-2. 56년 봄 2월에 왕이 靺鞨 병력 10,000명으로 신라의 실직주성을 공격하여 빼앗았다.¹⁴⁾

A-3. 가을 9월에 何瑟羅 사람 가운데 15세 이상인 자를 징발하여 泥河에 성을 쌓았다(泥河는 일명 泥川이라고도 하였다).¹⁵⁾

A-1과 A-2는 468년 2월 고구려·말갈의 신라 실직성 공격에 대한 「신라본기」, 「고구려본기」 각각의 기사이다. 이 기록은 A-3의 하슬라인 징발 기사와 연계해서 하슬라, 실직의 위치 문제로 주목을 받았다. 지금의 강릉인 하슬라¹⁶⁾ 사람들을 신라가 징발해서 니하에 성을 쌓았는데 어떻게 몇 달 전에 고구려와 말갈이 강릉 이남의 실직, 즉 삼척을 공격하고 빼앗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 실직의 양양→삼척 위치 이동설,¹⁷⁾ 울진설,¹⁸⁾ 실직과 하슬라 포항설¹⁹⁾ 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특정한 지명의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추정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강릉, 삼척 지역의 고고학적 발굴 성

13)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자비 마립간 11년(468). 十一年, 春, 高句麗與靺鞨襲北邊悉直城.

14) 『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장수왕 56년(468) 2월. 五十六年, 春二月, 王以靺鞨兵一萬, 攻取新羅悉直州城.

15)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자비 마립간 11년(468) 9월. 秋九月, 徵何瑟羅人年十五已上, 築城於泥河(泥河一名泥川).

16) 본 고에서 강릉·하슬라, 삼척·실직의 지명 사용 기준은 사서의 기록을 옮길 경우에는 기록상의 지명, 그 외의 경우에는 강릉, 삼척을 용어로 사용하였다.

17) 이병도, 『韓國史』(古代篇), 을지문화사, 1959, 423쪽.

18) 리지린·강인숙, 『고구려사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76, 68~69쪽.

19) 박노석, 「삼국시대 실직과 하슬라의 위치 이동」, 『전북사학』 35, 2009, 48~56쪽.

과를 고려해보면 5세기 초에는 이미 두 지역 모두 신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음이 명확하다. 특히 강릉 지역은 안현동, 초당동 고분군이 4세기 4/4분기~ 5세기 1/4분기부터 축조되기 시작했다고 추정한다. 거기에 더해 병산동, 하시동 고분군도 5세기 1/4분기부터 축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는데 신라의 위세품이 매장된 수혈식 석곽묘가 대규모로 축조되어 있다.²⁰⁾

이러한 상황에서 실직=삼척설을 A-1, A-2 사료만 가지고 부정할 수는 없다. 때문에 최근의 연구들은 A-3에 등장하는 니하의 위치를 비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A-1, A-2 사료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니하의 위치에 대해서는 크게 강릉 일대, 남한강 상류로 학설이 나뉜다. 우선 강릉 일대설은 조선후기 지리지들의 영향을 받았다. 김정호의 『大東地志』에서는 니하를 德源으로 비정하고 있다.²¹⁾ 이에 착안하여 삼척의 五十川이나²²⁾ 대관령의 泥峴에서 발원한 連谷川으로²³⁾ 파악했다. 남한강 상류설은 발음의 유사성과 최근의 고고학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삼척의 서쪽에 위치한 정선의 옛지명이 仍買縣이고 ‘仍’과 ‘泥’가 음상사에 주목한 연구가 일찍부터 있었다.²⁴⁾ 정선 임계면 松溪里 山城의 위치에 주목해서 니하를 이 부근으로 파악한다거나,²⁵⁾ 祇摩 尼

20) 이상수, 「考古資料를 통해 본 悉直國」, 『이사부와 동해』 8, 2014, 101쪽.

21) 『大東地志』 권30, 方輿總志 2 新羅. 慈悲十一年, 徵河瑟洲人, 築城於泥河. 疑在江陵以北不遠之地. 泥河, 一云德源.

22) 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47쪽; 전덕재, 「新羅의 東北地方 國境과 그 變遷에 관한 고찰」, 『군사』 91, 2014, 159~162쪽.

23) 서병국, 앞의 논문, 1981, 244~256쪽; 김택균, 앞의 논문, 1997, 68~70쪽; 이인철, 『고구려의 대외정복 연구』, 백산자료원, 2000, 308쪽; 조이옥, 『統一新羅의 北方進出 研究』, 2001, 서경문화사, 82쪽; 최준경, 「5세기말엽~7세기중엽 삼국통일을 위한 고구려의 남방진출 연구」, 『고구려사연구논문집(2)』, 사회과학출판사, 2005, 138~139쪽.

24)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朝鮮歷史地理 I』, 岩波書店, 1964, 78~79쪽.

師今 14년(125) 7월 기사를²⁶⁾ 바탕으로 대령책은 大關嶺으로 비정하고 강릉 연곡면의 泥峴과 연결하여 송계리 산성을 泥河城으로 추정하기도 했다.²⁷⁾

이러한 니하=남한강 상류설 중 가장 주목할만한 학설은 『삼국사기』 지리지에서 溟州의 속현으로 등장하는 棟隄縣을 정선 임계면으로 파악한 홍영호의 연구였다.²⁸⁾ 해당 연구는 문헌사적 분석에 더해서 정선의 삼국시대 산성으로 파악하는 고성리 산성과 송계리 산성의 고고 발굴 성과를 추가로 제시하여 송계리 산성을 니하성으로 파악하였다.²⁹⁾

두 산성의 축조 연대에 대해 발굴조사 보고서에서는 출토 토기, 기와, 기타 유물들의 편년 추정을 바탕으로 하한이 6세기 중반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³⁰⁾ 다만 송계리 산성의 경우 인근 아우라지(지금의 정선 여량면) 유적에서 5세기 후반대 신라토기가 출토되어 상한을 5세기 후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하였다.³¹⁾ 또한 송계리 산성 동쪽에 위치한 임계리 고분군에서 신라의 수혈식석곽묘가 발굴되었는데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으로 편년을 비정했다.³²⁾ 이러한 고고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송계리 산성이 5세기 후반 축조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25) 서영일, 앞의 책, 1999.

26)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지마 이사금 14년(125) 7월. 秋七月, 又襲大嶺柵, 過於泥河. 王移書百濟請救, 百濟遣五將軍助之. 賊聞而退.

27) 장창은, 앞의 책, 2014, 91~94쪽.

28) 홍영호, 앞의 책, 2016, 23~29쪽.

29) 홍영호, 위의 책, 2016, 30~31쪽.

30) 강원문화재연구소, 『정선 고성리산성』, 2006a : 『정선 송계리산성』, 2006b.

31) 강원문화재연구소, 위의 책, 2006b, 138쪽.

32) 강원문화재연구소, 『정선 임계리 고분군』, 2007.

지금까지 니하의 위치에 대한 연구 성과를 살펴본 결과, 현재 까지는 문헌 자료와 고고 발굴 성과를 복합적으로 분석한 남한강 상류설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 니하를 남한강 상류, 특히 정선군 임계면 부근으로 비정한다면 고구려의 실직 공격 직후에 신라에서 하슬라인들을 남하시켜 축성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1, A-2와 A-3이 발생하는 시기가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두 사건 사이에 상호 연결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측을 바탕으로 고구려·말갈군이 충주→제천→영월→정선→임계→삼척의 이동로를 따라 공격을 가했고, 신라의 실직성을 함락한 것이다.³³⁾

그런데 A자료群의 사실 관계를 위와 같이 파악했다 하더라도 몇 가지 의문점이 남는다. 첫째는 어째서 신라에서 실직이 아닌 하슬라의 장정들을 징발해 니하에 성을 축성했는가이다. 둘째는 아무리 태백산맥에 가로막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계→삼척으로의 공격 루트를 신라에서 어째서 대비하지 못했는가 하는 점이다. 하슬라인 징발 문제에 대해서는 고구려의 측방공격 루트를 방어하기 위해 일찍 개척한 강릉에서 서쪽으로 진출해 방어를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있다. 신라에서 강릉을 동북경 거점으로 하여 정선군 임계부터 충북 제천까지 남한강을 따라 국경 방어선을 형성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ㄱ’형의 관할 구역을 당시의 하슬라가 가졌다는 것이다.³⁴⁾

다만 일찍 개척했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강릉을 중심으로 신라가 서쪽 방어선을 구축했다고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강릉이 고고학적으로 가장 빠르게 신라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삼척 지역 역시 5세기 중엽부터는 신라고분

33) 장창은, 앞의 책, 2014, 94쪽 ; 홍영호, 위의 책, 2016, 40쪽.

34) 홍영호, 앞의 책, 2016, 40~41, 68쪽.

이 축조되면서 신라의 영향권 내지는 지배 아래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³⁵⁾ 문헌사의 관점에서든 실직은 하슬라보다 빠른 2세기 경부터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용어가 등장하고 있다.³⁶⁾ 즉 460년대로 기간을 한정 지었을 때, 당시 강릉·삼척 지역에 대한 신라의 지배력이 두 지역 중 어디에서 우세했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 그렇다면 자비 마립간대 니하의 성을 쌓는데 하슬라의 장정들이 징발된 원인은 무엇이였을까? 이와 관련해서 강릉-정선, 삼척-정선 교통로의 지형 조건에 주목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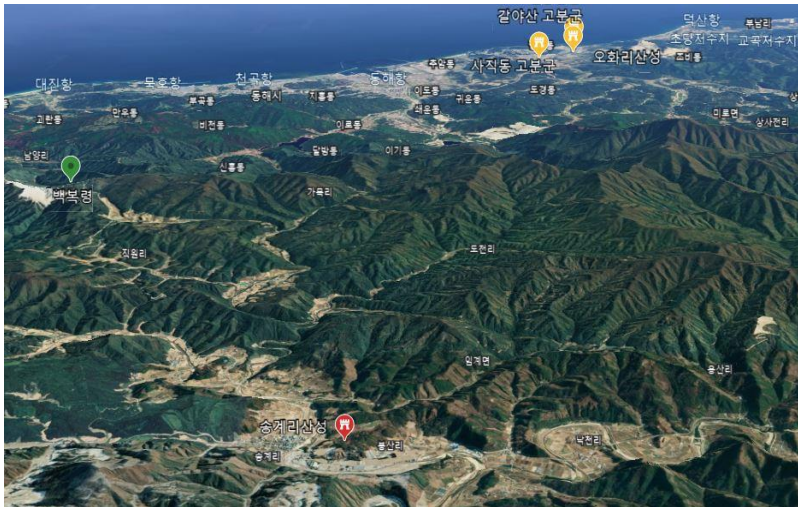
35) 이상수, 앞의 논문, 101~102쪽.

36) 『삼국사기』 초기 기록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직이 하슬라보다 빠른 시기에 등장한다는 점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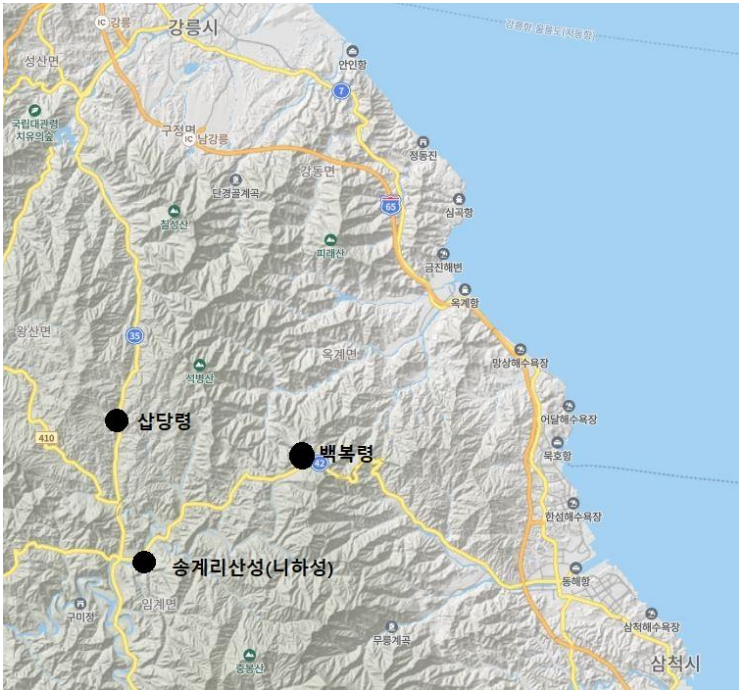
〈그림 1〉 송계리 산성-강릉 방향 위성지도



〈그림 2〉 송계리 산성-삼척 방향 위성지도



〈그림 3〉 삼당령, 백복령, 송계리산성 현재 지도



〈그림 1〉과 〈그림 2〉는 각각 송계리 산성에서 강릉 강문동 토성터, 삼척 오화리 산성 방향으로 바라본 위성사진이다.³⁷⁾ 송계리 산성에서는 각각 삼당령³⁸⁾, 백복령³⁹⁾을 넘어야만 강릉, 삼척 지역에 도착할 수 있다. 〈그림 1〉을 우선 살펴보면 송계리→삼당령→강릉 강문동 경로는 어느 정도 일직선상으로 길이 이어지다가 지금의 오봉저수지에서 남대천을 따라가는 형태이다. 이 경로는 골짜기 길이지만 길의 지형, 고도 변화가 심하지 않음을

37) 구글어스(<https://earth.google.com/web>) 방위·높낮이 설정 기능 이용. 높낮이 설정을 사용해서 각각 방향의 지형 고저를 나타냈다.

38) 김기철, 『江陵地域 地名由來』, 인애사, 1992.

39) 지역N문화(<https://ncms.nculture.org/castle-road/story/2078>).

확인할 수 있다. 이 길의 길이는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43km이며, 삼당령 정상의 해발고도는 680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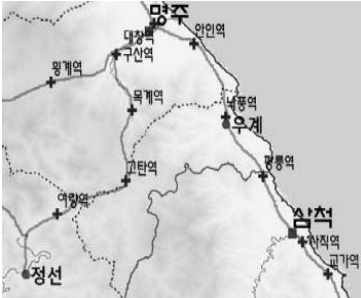
반면에 <그림 2>의 송계리-백복령-삼척 오화리 산성 경로는 길이 일직선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송계리에서 백복령까지 여러 차례 산 능선을 타고 올라가야만 도달할 수 있다. 또한 백복령에 도착하고서도 삼척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산 능선을 여러 번 타면서 내려가야 한다. 이 교통로는 현재 도로를 기준으로 45km이며, 백복령 정상의 해발고도는 780m이다. <그림 3>을 통해 두 경로를 지나는 도로를 살펴볼 수 있다. 두 도로를 비교해 보면 송계리-백복령-삼척 오화리 산성 경로가 이동거리가 길고, 넘어야 하는 고개의 해발고도가 더 높으며 지형의 변화도 많음을 알 수 있다. 즉 송계리에서 삼척 지역으로의 이동이 강릉으로의 이동보다 어렵다.

정선-강릉, 정선-삼척 간의 일직선상 거리는 정선-삼척이 가깝다.⁴⁰⁾ 또한 이 일직선상의 거리를 따라가면 전자는 태백산맥을 사선으로 질러서 이어지지만 후자는 횡으로 가로지른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선-삼척이 더 가까운 지역이라고 인식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릉에서 정선, 특히 송계리로의 이동이 더 짧고 원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을 방증해주는 것이 고려, 조선시대의 간선도로이다. 강원지역 고려와 조선의 간선도로에 대해서 당시 역들의 위치를 바탕으로 분석한 연구가 있다.⁴¹⁾ 해당 연구에는 1055년, 1530년 영서·영동 남부 지역의 교통로를 복원한 지도가 있다. 이 지도에서 강릉, 삼척, 정선 지역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0) 송계리에서 강문동 토성까지 일직선상은 약 35km, 송계리에서 오화리산성까지는 약 30km이다.

41) 정요근, 「고려~조선 시대 강원 지역 역 분포와 영서 북부 지역 간선 교통로의 변화」, 『강원사학』 32, 2019.

〈그림 4〉 1055년 강릉, 삼척, 정선 지역
교통로(정요근, 『고려~조선 시대 강원
지역 역 분포와 영서 북부 지역 간선
교통로의 변화』, 『강원사학』 32, 2019,
108쪽 〈지도3〉 일부 발췌)



〈그림 5〉 1530년 강릉, 삼척, 정선 지역
교통로(정요근, 『고려~조선 시대 강원
지역 역 분포와 영서 북부 지역 간선
교통로의 변화』, 『강원사학』 32, 2019,
108쪽 〈지도4〉 일부 발췌)



정선 송계리 지역은 고려시대에는 高坦驛, 조선시대에는 高丹驛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림 4〉와 〈그림 5〉를 살펴보면 1055년에는 고탄역과 연결된 역이 서쪽의 餘糧驛, 북쪽의 木界驛뿐이다. 반면 1530년에는 고단역 동쪽으로 臨溪驛, 新興驛이 설치되었고, 이 두 역을 거쳐 삼척의 史直驛까지 이어지는 교통로가 생겼다. 임계와 신흥 외에도 碧呑驛과 好善驛이 정선 지역에 설치되었는데 이 4개 역은 모두 평창-정선-삼척을 연결하는 교통로 상에 위치했다. 즉 조선시대가 되어서야 정선-삼척을 거치는 동서 횡단 교통로가 제대로 개발된 것이다.⁴²⁾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5세기 말엽에는 강릉-정선 송계리 지역으로의 이동이 삼척-정선 송계리 지역 간 이동보다 쉬웠음을 확인했다. 또한 정선-삼척 사이의 교통로가 제대로 개발된 것은 조선시대였음도 파악했다. 따라서 5세기 말엽 신라인들의 지리적 인식 상에서 강릉과 정선 임계가 서로 연결된 지역으로

42) 정요근, 위의 논문, 2019, 109쪽.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니하 유역에 성을 쌓는데 하슬라인들을 동원한 것이다.

이러한 지리 인식은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즉 백복령을 넘어서 실직성을 공격하는 루트가 군사 이동로로서 거의 사용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A-2의 고구려가 말갈군을 동원했다는 기록에 더욱 주목할 수 있다. 정선을 포함한 남한강 상류의 영서 지역에 거주하던 말갈인들이⁴³⁾ 정선 송계리->삼척으로 향하는 이동로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고구려가 말갈군을 앞세워 신라의 실직을 공격했던 것이다. 신라의 입장에서 고구려가 새로운 군사 이동로를 통해 하슬라를 거치지 않고 실직성을 습격한 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때문에 이 공격 루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정선 송계리 지역에 축성을 감행한 것이다.

신라가 고구려의 습격이 있는 지 7개월 만에 니하성을 축성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구려는 실직성을 빼앗기는 했지만 오래 점거하지 않고 퇴각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가 실직성을 공파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신라가 실직 이북의 하슬라인을 징발해 성을 쌓는 것이 모순되므로 실직이 원래는 하슬라 북쪽의 襄陽이라는 주장도 있다.⁴⁴⁾ 하지만 최근의 발굴·연구 성과들을 고려했을 때, 실직의 지명이 이치되었을 가능성보다 고구려가 실직성에서 후퇴하고 이후 신라가 정선 송계리에 산성을 쌓았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43) 일반적으로 이 시기 고구려와 활동한 말갈은 예족으로 보고 있다. 필자도 이러한 견해에 동의한다. 다만 『삼국사기』에서 ‘말갈’이라고 표현했기에 본 논문에서는 강원 영서 지역에 거주하던 예족 집단을 말갈로 표기했다.

44) 이병도, 앞의 책, 1959, 423쪽.

고구려의 퇴각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다만 당시 전황을 살펴보면 고구려의 원정군이 실직성을 점거했다고 하더라도 하슬라 지역이 온존했기 때문에 신라의 동해안 지역 방어체제를 완전히 무너뜨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때문에 실직 이남의 신라군과 하슬라 지역의 신라군에게 남, 북으로 협격당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더해 당시 고구려군의 주축이 용병으로 기용한 1만 말갈군이었던 점도 퇴각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⁴⁵⁾ 어쨌든 고구려가 실직 지역의 신라 전력을 크게 약화시킨 것은 사실이었다. 이후 재차 공략을 통해 실직 지역을 완전히 확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실직 지역을 확보한다면 하슬라 지역을 북, 서, 남에서 압박할 수 있었다. 또한 경주지역까지 동해안 경로를 따라 남하할 수도 있었다. 즉 차후 실직 점령에 대한 단초를 마련한 것이기에 고구려로서는 소기 목적은 달성한 것이다.

그런데 이후 고구려가 재차 신라를 공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틈을 타서 신라가 니하성을 축조하였다. 고구려가 실직성을 공격한 이듬해부터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하고 노골적으로 경계하는 형태를 보였다. 蓋鹵王 15년(469) 고구려 남변 공격을⁴⁶⁾ 시작으로 쌍현성 수리 및 청목령 목책 설치,⁴⁷⁾ 北魏와의 외교를⁴⁸⁾ 통한 외교적 압박까지 가하고자 하였다. 백제의 이러한 행보가 이어지자 고구려의 장수왕은 친정하여 백제의 한성을 공격하였다. 고구려의 한성 공격 과정을 살펴보면 3만이라는 대군이 동원되었으며, 道琳이라는 첩자를 파견해서 백제를 내부

45) 장창은, 앞의 책, 2014, 96쪽.

46) 『三國史記』 권25, 백제본기 3 개로왕 15년(469) 8월. 十五年, 秋八月, 遣將侵高句麗南鄙.

47) 『三國史記』 권25, 백제본기 3 개로왕 15년(469) 10월. 冬十月, 葺雙峴城, 設大柵於青木嶺, 分北漢山城士卒戍之.

48) 『三國史記』 권25, 백제본기 3 개로왕 18년(472). 十八年, 遣使朝魏, 上表.

에서 흔들었다.⁴⁹⁾ 즉 고구려에서 백제 한성 공격을 위해 수년간 국방력을 집중하면서 철저히 준비했다고 볼 수 있다.⁵⁰⁾

이렇게 백제 한성을 중심으로 고구려·백제의 군사력이 집중되던 469~475년 사이에 신라의 국가 전략은 축성을 통한 영역 확장이었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는 三年山城 축조,⁵¹⁾ 一牟城 등 6성 축조⁵²⁾ 기사를 바탕으로 당시 신라가 추풍령, 화령 이서의 보은·옥천·청주 문의 지역 등으로 영역 확장을 꾀했다고 분석했다.⁵³⁾ 『삼국사기』 기록과 보은, 옥천 지역 산성 발굴 조사서 등을 살펴보면 당시 신라가 소백산맥 이서 지역으로의 영역 확장과 거점 마련에 집중했음은 명확하다.⁵⁴⁾

또한 강원도 정선 지역에서도 신라가 소백산맥 이서 지역과 같은 정책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앞서 서술했던 정선 지역의 발굴조사 보고서들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임계면 고분군, 아우라지 유적에서 5세기 후반 신라 유물들이 발견되었

49) 『三國史記』 권25, 백제본기 3 개로왕 21년(475) 9월. 二十一年, 秋九月, 麗王巨璉帥兵三萬, 來圍王都漢城. 王閉城門, 不能出戰, 麗人分兵爲四道夾攻, 又乘風縱火, 焚燒城門. 人心危懼, 或有欲出降者. 王寤不知所圖, 領數十騎, 出門西走, 麗人追而害之. 先是, 高句麗長壽王陰謀百濟, 求可以間諜於彼者. 時浮屠道琳應募曰, “愚僧既不能知道, 思有以報國恩. 願大王不以臣不肖, 指使之, 期不辱命.” 王悅, 密使譎百濟 . . . (중략) . . . 是以倉庾虛竭, 人民窮困, 邦之隍杞, 甚於累卵.

50) 장창은, 앞의 책, 2014, 97쪽.

51)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자비 마립간 13년(474). 十三年, 築三年山城. 三年者, 自興役始終三年訖功, 故名之.

52)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자비 마립간 17년(474). 十七年, 築一牟·沙尸·廣石·沓達·仇禮·坐羅等城.

53) 양기석,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신라 서원소경 연구』, 서경문화사, 2001 ; 이부오, 「5세기 후반 신라의 소백산맥 서쪽 진출과 지배형태」, 『신라사학보』 10, 2007 ; 장창은, 앞의 책, 2014, 97~100쪽 ; 「나·제동맹기」 신라와 백제의 국경선 변천, 『한국학논총』 45, 2016 ; 홍지윤, 「新羅의 中原地域 進出에 대한 考古學的 檢討」, 『한국사연구』 175, 2016 ; 전덕재, 「4~7세기 백제의 경계와 그 변화」, 『백제문화』 58, 2018 ; 윤성호, 앞의 논문, 2019b.

54) 삼년산성 축조 이듬해에는 萁老城을 축조했다는 기사가 있다. 모로성 축조과 관련해서는 후술할 내용이 있어 해당 문단에서는 제외하였다.

으므로 이 시기에 정선 아우라지(지금의 여량면) 지역까지는 신라가 진출 또는 최소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두 유적의 존재는 신라화된⁵⁵⁾ 강릉 지역을 통해 이 지역에 들어온 집단이 있었음을 추측하게 하는 자료이다.⁵⁶⁾ 또한 아우라지 지역이 임계면보다 서쪽에 위치하고 있기에 강릉→임계면→여량면의 방향으로 신라의 진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임계면 고분군, 송계리 산성 중 어떤 것이 먼저 축조되었는가를 알 수는 없지만 니하성을 쌓는 것에 하슬라인들이 동원되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자비 마립간대 임계면 지역에 대한 신라의 행정 지배력이 축성을 진행할 정도는 아니었기에 하슬라인들을 동원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이 맞다면 니하성을 축성해서 군사 거점을 확보하고, 이후 임계면 지역에 대해 고분 축조 등의 신라화를 진행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 지역을 신라의 간접 지배 또는 그 이상의 지배력을 갖춘 영역으로 만들고 아우라지, 더 나아가 정선 고성리 산성, 애산리 산성 등지까지 신라가 서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신라는 고구려-백제의 대립을 틈타 소백산맥 이서 지역뿐만 아니라 정선을 시작으로 강원도 영서 지역에 대한 진출도 이 시기에 꺾하였다. 다만 이러한 신라의 움직임은 백제와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던 고구려를 자극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55) '新羅化'란 부뚜막 달린 기자형 온돌의 방형주거지, 신라 고분과 토기로 대표되는 신라의 물질문화가 영동·영서의 토착 사회에 진출해 기존의 토착문화가 신라의 물질문화로 대체되는 것을 표현한 개념이다(이창현, 「江陵地域의 新羅化 過程: 古墳資料를 中心으로」, 『문화사학』 25, 2006; 박수영, 「江陵 草堂洞 三國時代 遺構와 遺物에 대한 小考」,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2009; 이성주·강선옥, 「草堂洞遺蹟에서 본 江陵地域의 新羅化 過程」, 위의 책, 2009).

56) 이성주·김라희·이지운, 「영동과 영서지역의 신라화와 물질문화 변동」, 『신라문화』 60, 2022, 78쪽.

3. 炤知 麻立干대 對고구려 방어와 횡성·홍천 진출 시도

가. 481년 고구려의 신라 침공 루트

고구려와 신라의 군사 충돌이 다시 발생한 것은 소지 마립간 2년(481)이었다. 자비 마립간대와 마찬가지로 동해안 일대에서 긴장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다.

B-1. 11월에 말갈이 북쪽 변경을 침략하였다.⁵⁷⁾

B-2. 3년 봄 2월에 比列城으로 행차하여 군사들을 위로하고 군복을 내려 주었다.⁵⁸⁾

고구려라는 명칭이 직접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당시 동해안 일대의 말갈이 고구려의 부용 세력임을 고려하면 B-1의 전투부터 사실상 고구려와 신라의 군사 충돌이 재개되었다고 파악할 수 있다. 당시 말갈이 침략했다는 북변이 어디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 B-2를 살펴보면 불과 3개월 뒤에 소지 마립간이 직접 비열성으로 행차해서 군사들을 위로하였다. 비열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廣開土王碑」와 「昌寧新羅眞興王碑」의 내용을 주목할 수 있다. 「廣開土王碑」에서는 碑利城라는 지명을 확인할 수 있고, 「昌寧新羅眞興王碑」에는 ‘碑利城軍主喙福登智沙尺干’라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 碑利城은 일반적으로 比列忽, 즉

57)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 마립간 2년(480) 11월. 十一月, 靺鞨侵北邊.

58)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 마립간 3년(481) 2월. 三年, 春二月, 幸比列城, 存撫軍士, 賜征袍.

지금의 安邊에 비정한다. 따라서 B-2기사의 比列城도 안변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⁵⁹⁾

경주-안변의 거리와 두 기사 사이의 시간을 고려한다면 말갈의 공격이 있던 직후에 소지 마립간이 안변을 위무한 것으로 보인다. 즉 B-1과 B-2의 내용은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480년 11월 말갈이 공격한 지역은 안변 또는 안변 부근의 신라 북변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시기 신라가 안변까지 진출했는가에 대해서는 부정론⁶⁰⁾, 긍정론⁶¹⁾이 공존하고 있다. B사료군의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B-2의 내용을 마냥 부정하기는 힘들다. 또한 이미 하슬라, 실직이라는 명확한 지명이 있는 강릉, 삼척 부근으로 비열성을 비정하는 것도 신뢰성이 높지 않다.

5세기 동해안 지역이 강릉 이남 지역이 신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서 2장에서 살펴봤듯이 삼척 지역인 실직성이 고구려에 의해 파괴당하는 등 하슬라 지역을 제외하고는 다소 불안정한 상황이었다. 이는 고구려도 같은 상황이었는데 앞서 늘지 마립간대 朴堤上이 고성 의 해로를 통해 고구려에서 신라로 寶海와 함께 탈출한다.⁶²⁾ 즉 5세기 초에 고구려가 고성 지역을 완전하게 장악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⁶³⁾ 이처럼 당시 동해안 지역의 지배는 유동적이었기에 신라의 비열

59)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4쪽.

60) 이병도, 앞의 책, 1977, 47쪽 ; 김영하, 「新羅時代 巡守의 性格」, 『민족문화연구』 14, 1979, 220쪽. 또한 이 시기 고구려와 신라의 국경을 다름에도 안변 위무 기사를 다루지 않고 생략하여 논쟁을 피하는 연구들도 있다(강중훈, 앞의 책, 2008 ; 박성현, 앞의 논문, 2011).

61)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사람들, 2005, 238~239쪽 ;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4~5쪽.

62) 堤上簾前受命, 徑趨北海之路變服入句麗. 進於寶海所共謀逸期, 先以五月十五日歸泊於高城水口而待. 期日將至寶海稱病數日不朝, 乃夜中逃出行到高城海濱. 王知之使數十人追之. 至高城而及之, 然寶海在句麗常施恩於左右, 故其軍士憫傷之皆拔箭鏃而射之, 遂免而歸.

63) 김창석, 「7세기 신라 州의 성격 변화와 수취 -溟州와 朔州를 중심으로」, 『百濟文化』 56, 2017, 19쪽.

홀 진출이 마냥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다.

475년 고구려의 백제 한성 공략이 있고 나서 전후 처리 문제, 북위와 고구려의 갈등 등으로 인해 동해안 지역에서 영향력이 약화되었고, 이를 노려 신라가 안변 지역에 일시적으로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⁶⁴⁾ 이후 480년쯤에는 이러한 정세에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한성 공략 이후 전후 처리 과정이 거의 마무리되었을 것이고, 당시 백제는 佐平 解仇와 恩率 燕信의 반란, 東城王의 즉위로 인한 내부 정세가 혼란했기에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또한 장수왕 68년(480) 4월에 南齊가 장수왕을 책립해주었기에 북위에 대한 견제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백제, 북위와의 정세가 비교적 안정되자 고구려에서 말갈의 공격을 시작으로 다시 신라에 대한 공세를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 위치, 말갈의 공격, 진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신라에서는 고구려의 공세가 안변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본 것 같다. 때문에 소지 마립간이 직접 이 지역을 위무하면서 방어체제를 점검한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의 공격은 안변 공략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 C. 3월에 고구려가 말갈과 함께 북쪽 변경에 쳐들어와 狐鳴 등 7성을 빼앗고, 또한 彌秩夫로 진군하였다. 우리 군사는 백제·가야의 구원병과 함께 길을 나누어 막으니 적이 패하여 물러갔다. 니하 서쪽까지 추격해 물리치고 1천여 명의 목을 베었다.⁶⁵⁾

64) 전덕재, 앞의 논문, 2014, 158~159쪽; 윤성호, 「삼국시대 비열홀 지역 관방시설 연구」, 『백산학보』 121, 2021, 245쪽.

65)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 마립간 3년(481) 3월. 三月, 高句麗與靺鞨入北邊, 取狐鳴等七城, 又進軍於彌秩夫. 我軍與百濟·加耶援兵, 分道禦之, 賊敗退. 追擊破之泥河西, 斬首千餘級.

468년 실직성 공격 때처럼 고구려는 말갈과 연합하여 신라의 북변으로 공격해 들어왔다. 이 때 고구려가 공격해온 지역과 이동로에 대해서는 보통 狐鳴城과 미질부의 위치 비정을 바탕으로 분석해왔다. 미질부에 대해서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내용을 바탕으로 포항 흥해 지역으로 비정함에 이견이 없다.⁶⁶⁾ 반면 호명성에 대해서는 경북 청송설과 영덕설로 견해가 나뉜다. 호명성의 위치가 청송이나 영덕이나에 따라서 고구려군의 이동로가 크게 바뀐다.

기존의 통설은 『삼국사기』 地理志에 소백산맥 이남 경북 북부 지역이 ‘高句麗故地’로 표현되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호명성을 청송군 虎鳴山과 연결해서 비정한⁶⁷⁾ 호명성=청송설을 받아들여서 ‘新羅土內幢主’가 경북 북부지역에서 고구려군이 출발하여 청송-영덕-포항 흥해로 진격했다고 보았다.⁶⁸⁾ 고구려군이 경북 북부를 통해 진격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당시 소백산맥 이남에서 주둔하지는 않았기에 소백산맥 이서 또는 이북에서 출발했다고 보는 견해들도 있다. 소백산맥 이서의 중원 지역에서 출발하여 경북 북부-안동-영해-미질부로 고구려가 진공했다거나,⁶⁹⁾ 정선에서 출발하여 태백산을 우회해서 봉화-안동 예안-청송 진보-영덕 영해-포항 흥해로 진격했다는 견해가 그것이다.⁷⁰⁾

반면에 호명성=영덕설을 받아들이고 고구려군의 진격로를 동

6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2, 慶尙道 興海郡 古跡. 彌秩夫城. 『周官六翼』: 高麗太祖十三年, 北彌秩夫城主萱達與南彌秩夫城主來降, 二彌秩夫合爲興海郡.

67) 이병도 역, 앞의 책, 1977, 77쪽

68) 정운용, 앞의 논문, 1989, 13쪽 ; 박정철, 「麗羅戰爭史의 再檢討」, 『한국사학보』 26, 2007, 64쪽. 김현숙은 고구려군이 경북 북부지역에서 출발하였다고 보았지만 호명성의 위치 자체는 영덕으로 보았다(김현숙, 앞의 논문, 2002, 104~106쪽 : 「삼국사기 안동 지역의 역사」, 『고대 안동의 역사와 문화』, 안동시, 2009, 102~104쪽).

69) 홍영호, 앞의 논문, 2010, 71~72쪽.

70) 장창은, 「고구려의 한성 공격과 한강 유역 지배」, 『서울 2천년사 6-삼국의 각축과 한강』, 서울역사편찬원, 2015, 203쪽.

해안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우선 고구려 동해안 이동설은 소백산맥 이남의 고구려군 주둔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음상사를 바탕으로 호명성=영덕설은 영덕의 고구려 지명인 也尸忽인데 야시가 여우의 방언이고 홀은 성을 뜻하므로 야시홀=여우성=호명성이라고 주장했다.⁷¹⁾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호명성을 제외한 6성을 영덕 이남-홍해 사이에 위치한 것으로 파악하거나,⁷²⁾ 고구려 군이 삼척-울진-영덕-포항을 따라서 남하했다고 보았다.⁷³⁾

호명성이 청송 또는 영덕인지를 명확히 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관련 사료가 C기사 외에는 찾을 수 없으며, 고고학 자료 중에서도 어느 한 지역을 명확히 호명성이라고 단정 짓게 해주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당시 고구려군의 진격로는 정황 근거들을 통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다. 고구려군의 침공 이유, 이동로의 지리적 조건 등의 분석을 통해서 고구려군의 진격로에 대한 정황 근거를 찾아볼 만하다. 우선 481년 고구려군의 침공 이유에 대해서는 놀지 마립간대 신라가 차지한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의 ‘高句麗故地’ 재탈환,⁷⁴⁾ 백제의 내분을 동기로 고구려의 남진 재개,⁷⁵⁾ 신라의 동해안 지역 북상과 안변 위무에 대한 고구려의 대응⁷⁶⁾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보았듯이 소지 마립간의 안변 위무보다 말갈의 신라 북변 침공이 앞서 벌어진 사건이다. 또한 고구려군의 진격로로 비정되는 지역들이 안변, 강릉과는 비교적 거리가 멀다는 점에서 신라의 동해안 지역 북상에 대한 대응, 반격으로만

71) 손영중, 『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362쪽.

72) 리지린, 앞의 책, 1976, 362쪽.

73) 임용한, 『전쟁과 역사』, 혜안, 2001, 100~105쪽;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9쪽.

74) 김현숙, 앞의 논문, 2002, 103쪽.

75) 이명식, 앞의 논문, 2002, 23쪽.

76) 윤성호, 앞의 논문, 2021, 245쪽.

해석하기는 힘들다. 영역 재탈환이 목적이었다면 경북 북부 지역을 다시 탈환했음에도 경주로 진격한 고구려군의 이동 형태는 이해하기 힘든 면이 강하다. 또한 신라가 북상 중임에도 안변 지역 등을 재탈환하지 않고 경북 북부를 탈환하려 했을지도 의문이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침공 동기는 남진 정책의 재개로 볼 수 있다. 또한 단순히 백제, 신라와의 전쟁을 재개한 정도가 아니었다. 고구려가 도착했다는 미질부, 지금의 흥해읍은 서쪽으로 진격하는 신광면→안강읍→경주, 남쪽으로 진격하는 연일읍→천북면→경주 등 경주의 북쪽과 동쪽으로 모두 진격할 수 있는 교통로상에 위치했다. 고구려군이 진격 과정에서 미질부까지 7개 성만을 빼앗았으므로 방대한 영역을 점령하면서 이동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즉 고구려군의 목적은 영역 점령보다는 신라 금성으로의 수도진공작전이었을 것이다. 475년 백제의 한성을 점령한 것과 같은 방식의 전략을 구사한 것이다. 따라서 호명성을 포함한 7성은 고구려군의 출발지에서 금성까지 배치된 성들로 추정할 수 있다.

고구려군의 목적이 신라의 금성 공략이었다면 475년 백제의 한성 공략 때처럼 신라의 동맹국에서 보낸 지원군이 도달하기 전에 금성 공략을 완료하고자 했을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로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동속도의 요소에서 경북 북부 이동로는 지리적인 부분에서 동해안 이동로보다 불리하다. 우선 당시 고구려군의 출발지를 소백산맥 이남으로 보기는 다소 힘들다. 소백산맥 이남에 여전히 고구려군이 주둔한 상황에서 이를 공략하지 않고 하슬라에서 계속 북상하였다고 보기에는 당시 정세상 다소 무리한 추측이다.⁷⁷⁾

77) 강중훈, 앞의 책, 2008, 107~113쪽 ; 장창은, 앞의 책, 2014, 135쪽.

또한 고고학 발굴 성과를 통해 안동 지역에 신라가 5세기 중반부터는 진출했음을 알 수 있다.⁷⁸⁾ 뿐만 아니라 영주, 순흥 일대도 5세기 후반에는 신라의 변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고고학 조사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⁷⁹⁾ 즉 481년 당시에 고구려군이 소백산맥 이남에서 주둔하고 있었다면 이 위치는 봉화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당시 봉화에서 영주, 순흥을 거치지 않고 소백산맥을 넘을 수 있는 교통로는 개통되지 않은 상태였다.⁸⁰⁾ 때문에 봉화에 고구려군이 주둔하고 있었다더라도 군사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봉화에 고구려 주둔군이 있었다더라도 유지가 가능했다고 보긴 힘들다. 즉 고구려군이 481년에도 소백산맥 이남에서 주둔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지는 부족하다. 따라서 고구려군이 경북 북부 이동로를 활용했다면 출발지는 소백산맥 이북 또는 이서여야 한다. 앞서 여러 견해 중 충주 출발설,⁸¹⁾ 정선 출발설⁸²⁾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설 모두 지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78) 서경민, 「5~6세기대 안동지역 세력의 구성과 그 동향」, 『한국고고학보』 83, 2012, 7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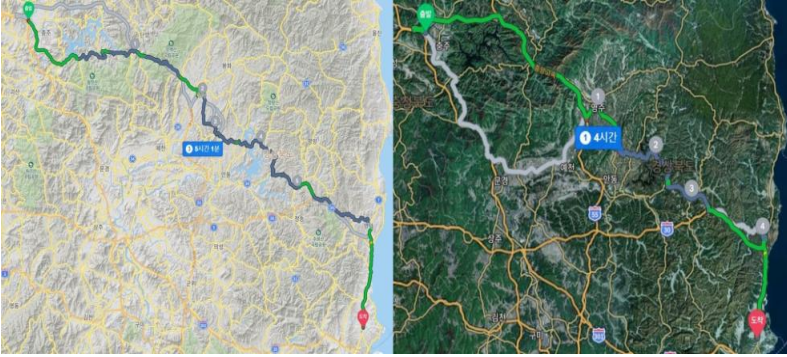
79) 서지영, 「5~6세기 영주·순흥 재지세력의 동향」, 『대구사학』 120, 2015, 19쪽.

80) 정요근, 「高麗·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52쪽 <지도 I-3>; 김재완, 「19世紀末 洛東江流域의 鹽 流通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171쪽 <그림 4-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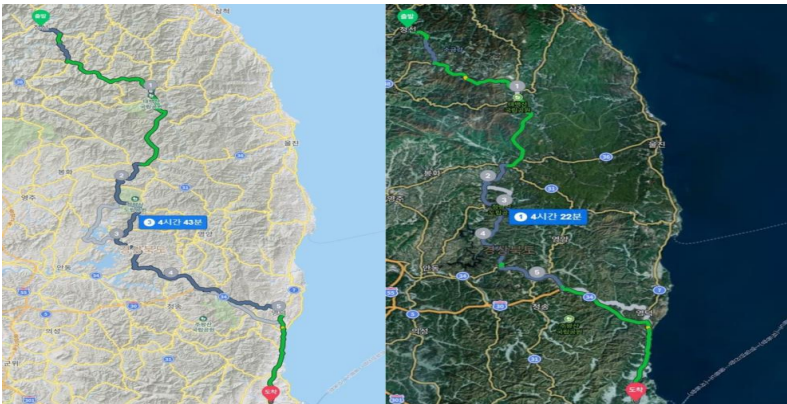
81) 홍영호, 앞의 책, 2016, 71쪽.

82) 장창은, 앞의 책, 2014, 135쪽.

〈그림 6〉 충주-영주-예안-진보-영덕-흥해 경로



〈그림 7〉 정선-태백-봉화-예안-진보-영덕-흥해 경로



〈그림 6〉과 〈그림 7〉은 각각 충주→흥해, 정선→흥해 이동로를 나타낸 것이다.⁸³⁾ 우선 〈그림 6〉을 살펴보면 충주에서 출발

83) 480년대의 교통로를 완벽히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대동여지도(<http://kyuhgis.snu.ac.kr/>), 일제강점기 지형도(https://db.history.go.kr/hgis/mod_g1/main.do)를 바탕으로 당시 이동로상에 있던 지역들을 거쳐가는 방식으로 경로를 네이버 지도(<https://map.naver.com/v5/>)에 재현했다. 다만, 〈그림 6〉의 경우 현재 도로가 끊기거나 안동호 개발로 지형이 달라진 부분들이 있어 〈그림 5〉에 비해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면 고구려군은 죽령을 넘어 영주에 도달한다. 그런데 이 시기 신라는 영주, 순흥 등지에 축성을 단행하고 사민을 통해서 지배력 강화를 꾀하면서 죽령 부근의 방어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였다.⁸⁴⁾ 따라서 고구려군이 죽령을 넘어왔다면 이 지역의 신라군을 격파해야만 한다. 또한 고구려군이 영주에서 계속 이동하면 지금의 불로봉, 천등산 인근 고개를 넘어야 하며, 진보에서는 다시 황달재를 넘어야 영덕에 도달할 수 있다. 현대의 기준으로 이 이동로의 길이는 약 264km이다. 『春秋左氏傳』에서는 당시 군대의 하루 행군거리를 1습로 표현했는데 보통 30리(=12km) 정도로 보았다.⁸⁵⁾ 이를 그대로 환산하면 22일 정도이지만 산지 이동의 문제 등을 고려하면 25~29일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다.⁸⁶⁾

다음으로 <그림 7>을 분석해 보면 정선에서 지금의 태백선 라인을 따라 남하해서 지금의 태백시에 이른다. 이후 황지천을 따라서 이동하다가 낙동강 최상류와 만나는 석포면 부근에서 낙동강을 따라 이동한다. 계속 강안을 따라 남하하면 지금의 봉화군 명호면을 거쳐 안동 예안에 도달하고 이후 경로는 <그림 6>와 동일하다.⁸⁷⁾ 이 이동로의 길이는 약 285km정도가

84) 서지영, 앞의 논문, 2015, 17~20쪽.

85) 『春秋左氏傳』魯僖公 中 23년 甲申. 及楚 楚子嚮之曰 公子若反 晉國 則何以報不穀 對曰 子女玉帛則君有之 羽毛齒革則君地生焉 其波及 晉國者 君之餘也 其何以報君曰 雖然何以報我 對曰 若以君之靈 得反晉國 晉 楚治兵 遇於中原 其辟君三舍 若不獲命 其左執鞭弭 右屬橐韃 以與君周旋 [賈逵注] 三舍 九十里也; 노태준 역, 『손자병법』, 홍신문화사, 1983, 154~155쪽; 나동욱, 「7세기 중반 高句麗의 東蒙古 進出과 軍事戰略」, 『한국사연구』 144, 2009.

86) 육군의 행정적 이동 기준에 따르면 야지에서 이동은 시간당 6km, 산지는 시간당 4km로 보고 있다. 산지에서의 이동속도가 평지에 비해 2/3정도임을 알 수 있다.

87) 현대에는 이 경로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불가능하다. 우선 지금의 승부역-양원역 구간이 도보, 차량으로 모두 이동이 불가능하다. 또한 안동호의 건설로 명호면 남쪽의 안동 도산에서 예안으로의 이동도 우회해야 한다. <그림 6>의 경로는 길이 연결되는 지방도를 바탕으로 설정된 상태이다.

된다.⁸⁸⁾ 앞서 서술한 1솨의 기준으로 24일이 걸리는데 정선에서 봉화까지 평지가 없이 산지와 골짜기로 대부분 지형이 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림 6>의 기간보다 최소 4일 정도는 더 소비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군이 정선에서 출발하여 백복령을 넘어 삼척→홍해 이동로를 이용한다면 거리, 지형의 문제가 모두 완화된다. 정선→삼척→홍해 이동로의 길이는 약 251km로 1솨를 기준으로 21일이다. 다만 백복령을 제외하고는 높은 고개를 넘지 않고 해안도로 또는 인근의 낮은 산능선을 타고 남하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림 7>의 경로보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신라의 방어체계를 고려해도 이 동해안 이동로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서술했듯이 470년대 신라는 추풍령, 화령 인근에서 축성 사업을 진행하면서 방어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청원 남성골 유적이 5세기 중·후반, 대전 월평동 유적이 5세기 후반으로 추정한다는 점에서 480년대에 고구려가 청주 등으로 남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⁸⁹⁾ 백제와의 동맹 관계, 당시 진출 경로를 고려해보면 신라는 이 지역에 대한 방비에 많은 역량을 쏟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영주, 순흥 지역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축성, 사민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이 시기 신라의 군사, 사회적 역량이 집중적으로 투입된 곳은 소백산맥 서북쪽이었다. 게다가 B-2에서 확인했듯이 소지 마립간은 고구려의 공격을 대비해서 안변 지역을 위무하였다. 이러한 조

88) <그림 6>의 경로로는 약 250km이지만 주 81)에 서술했듯이 낙동강변의 길들이 끊긴 부분이 있고, 산을 넘어가는 지방도를 바탕으로 설정된 거리이다. 낙동강변을 따라가는 루트를 최대한 구현하면 정선→승부역까지 87km, 승부역→안동까지 74km, 안동→홍해까지 124km가 나와 약 285km가 나온다.

89) 충청문화재연구원, 『大田 月坪洞山城』, 2003 ; 차용걸 외, 『청원 IC~부용간 도로공사 구간 내 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2008, 중원문화재연구원 ; 양시은, 「고구려의 한강 유역 지배방식에 대한 검토」, 『고고학』 9-1, 2010 ; 장창은, 앞의 책, 2014, 129쪽.

건들을 모두 고려해보면 정선-삼척 방면에 신라가 니하성이 축조하고 남한강을 따라 서진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일련의 방어체제를 완비해둔 상황이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게다가 468년 실직성이 이미 한 번 공파된 적도 있었다.

따라서 당시 신라의 방어체계가 가장 약한 곳이 이 정선-삼척 방면이었을 것이다. 더군다나 신라가 동해안의 군사력을 안변 지역에 집중시켰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 지역을 통한 신라 침공이 상대적으로 수월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들을 고려했을 때, 481년 고구려·말갈의 공격은 정선-삼척-홍해 경로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신라 금성을 공략하고자 했던 고구려는 결국 홍해에서 백제, 대가야, 신라 삼국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말았다. 게다가 니하 서쪽까지 추격당해 1천여 명이 사망하는 패배를 당했다. 전쟁 결과를 바탕으로 유추해보면 강원 영서 일대에서 고구려의 군사력과 지배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후 신라는 이러한 정세를 이용해 강원 영서 지역으로의 진출을 더 적극적으로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신라 호산성의 위치와 489년 호산성 전투의 의미

일반적으로 481년 이후 고구려의 신라, 백제 공격 루트는 중원 지역과 충주 서남쪽으로 바뀌었다고 파악한다.⁹⁰⁾ 484년 고구려가 공격했다는 신라 북변 모산성의 위치가 진천, 문경 등으로

90) 홍승우는 481년 고구려가 니하에서 격퇴당했지만, 이후 고구려의 공격방향이 남한강 상류와 중원 지역으로 바뀐 것은 신라가 동해안 지역을 안정적으로 장악하지 못해 공격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보았다(홍승우, 「4~6세기 신라의 동해안 지역 진출과 지방 지배방식」, 『4~6세기 영남 동해안 지역의 문화와 사회』, 2009, 278~279쪽). 반면에 장창은과 윤성호는 오히려 481년 전쟁을 계기로 고구려가 동해안을 통한 신라의 공격이 어려워졌기에 공격 루트를 바꿨다고 보았다(장창은, 앞의 책, 135쪽;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36쪽).

비정되고,⁹¹⁾ 문자명왕대에 들어서는 괴산 인근으로 비정되는 살수에서 고구려군과 나·제 연합군의 전투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서 서술했듯이 당시 강원 영서 일대에서 고구려의 군사력·영향력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라가 정선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처럼 강원도의 다른 영서 지역으로의 진출을 도모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기록이 소지 마립간 11년(489) 9~10월 고구려의 신라 戈峴, 狐山城 공격이다.

D-1. 가을 9월에 고구려가 북쪽 변경을 급습하여 과현에 이르렀다.⁹²⁾

D-2. 겨울 10월에 호산성을 함락하였다.⁹³⁾

과현과 호산성은 기존의 연구에서는 그 위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한 곳들이다. 강원도 회양군 회양읍,⁹⁴⁾ 호명성과 동일,⁹⁵⁾ 충남 예산,⁹⁶⁾ 단양→문경의 별재,⁹⁷⁾ 계립령 주변⁹⁸⁾ 등으로 추정

91) 진천설의 민덕식이 모산성=진천 大母山城설을 제시한 것이 처음이었다(민덕식, 「鎭川 大母山城의 分析的 研究」, 『한국사연구』 29, 1980, 1~50쪽). 이후 대다수 연구자들이 이 설을 따랐다. 전덕재는 모산성이 대모산성인 것은 맞지만 신라가 일시적으로 진출하여 전투만 했을 뿐 지배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전덕재, 「신라의 북진과 서북 경계의 변화」, 『한국사연구』 173, 2016, 94~95쪽). 문경설은 모산성을 문경 姑母山城에 비정한 견해이다(강민식, 앞의 논문, 2013, 221~224쪽;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5~16쪽).

92)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 마립간 11년(489) 9월. 秋九月, 高句麗襲北邊, 至戈峴.

93)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소지 마립간 11년(489) 10월. 冬十月, 陷狐山城.

94) 사카이 가이조(酒井改藏), 「三國史記の地名考」, 『조선학보』 54, 1970, 40쪽.

95) 사카이 가이조(酒井改藏), 앞의 논문, 1970, 40쪽.

96) 정영호, 「高句麗의 鎭江流域進出에 대한 小考」, 『산운사학』 3, 1989, 100쪽.

97) 강민식, 앞의 논문, 2013, 225쪽.

98) 윤성호, 앞의 논문, 2019a, 17쪽.

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들은 음상사나 당시 삼국의 각축이 소백산맥 서북쪽 너머에서 대개 이루어졌다는 정세를 통한 추정이었다. 강원도 회양은 춘천, 철원의 이북에 있고 충남 예산은 공주의 서쪽에 위치한다. 지리상 신라와 고구려가 격돌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벌재나 계립령 인근은 당시 정세상으로는 적합하지만 명확한 근거 자료는 고사하고 방증이 될 수 있는 자료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이 과현, 호산성의 위치와 관련한 흥미로운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의 嶺, 峴, 山은 서로 호환이 되는 명칭이다. 이에 ‘狐山’을 ‘狐嶺’, ‘狐峴’과 함께 찾아보면 무주,⁹⁹⁾ 영덕,¹⁰⁰⁾ 과천,¹⁰¹⁾ 등에서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과천, 영덕, 무주는 지리적 위치상 당시 고구려, 신라의 국경지대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 홍천에서도 ‘狐山’과 관련된 사료가 남아있다.

E. 내가 경성에서 보름달을 본 것이 열 번이었고, 홍천에 이르러 초승달을 본 것이 아홉 번이었다 …(중략)… 호령은 홍천현의 동쪽에 있다. 서울을 돌아보며 새로 뜬 달을 세는데 몇 번이나 둥글었고 몇 번이나 가늘었다. 경성 변방의 외로운 마을에서 열 번 달이 둥글었고 호산의 황량한 골짜기에서 아홉 번 가늘었네.¹⁰²⁾

E는 홍천의 호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선시대 『東岳先生集』의 내용이다. 이 기록을 살펴보면 홍천의 호령은 현의 동

99) 『大東地志』 권13, 全羅道 茂朱. 狐嶺. 東北路, 沃川界.

100) 『輿圖備志』 권8, 경상도 盈德縣. 於火峴, 狐嶺. 俱治西南四十里, 青松界.

101) 『玉吾齋集』 권4, 시. 幾喫果川飯, 又踰狐嶺行.

102) 『東岳先生集』 권17, 東遷錄 下. 余在鏡城. 見望月者十, 及到洪川, 見初月者九. …(중략)… 狐嶺在洪川縣東. 鳳城回眼數新嶺, 經幾團圓到幾織. 雉塞狐村卜開鏡, 狐山荒谷九磨鎌.

쪽에 있었다고 한다. 또한 ‘狐嶺’과 ‘狐山’이 동일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래의 지도를 살펴보면 흥천에 있었다는 ‘狐山’의 존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8〉 朝鮮五萬分一地形圖 春川



〈그림 9〉 대동여지도 흥천 지역



〈그림 8〉을 살펴보면 오성산 동쪽으로 ‘狐嶺’이라는 지명이 기입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성산은 현재도 같은 명칭을 사용하며 호현도 여우고개라는 명칭으로 같은 위치에 있다. 〈그림 9〉을 확인하면 이 지역의 산을 大彌山이라고 적었는데 지금은 五龍山으로 불린다.¹⁰³⁾ 이 대미산에는 大彌山古城이라고 표현하는 산성이 오래전부터 있었다.¹⁰⁴⁾ 문헌의 기록과 지도상의 위치가 명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오래된 고성 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점이다.

이 대미산고성에 대해서는 일찍이 지표조사가 있었다.¹⁰⁵⁾ 해당 보고서에서는 대미산성의 축조연대를 삼국시대 혹은 통일신

103) 흥천군, 『2018 흥천군지』 상권, 흥천군청, 2018, 495쪽.

104)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6, 洪川 古跡. 大彌山古城 石築 周二千一百九十七尺 高七尺 今半頽落.

105) 강원고고학연구소, 『흥천 대미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흥천문화원, 1997.

라 이전으로 올라간다고 판단했다.¹⁰⁶⁾ 다만 최근 연구에서는 출토 유물들을 고려했을 때 통일신라 이후에 축성했다고 보기도 한다.¹⁰⁷⁾ 그렇지만 시대를 명확히 알기 힘든 기와나 토기편 등이 섞여있으므로 석축성 이전 토축성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¹⁰⁸⁾ 따라서 고고학 근거만을 가지고 대미산성이 5세기 후반 존재하지 않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시기 신라가 흥천 지역에 진출할 수 있었을까? 일반적으로 당시 흥천은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었다고 판단한다. 『삼국사기』 지리지의 기록과 역내리유적의 고구려토기,¹⁰⁹⁾ 철정리Ⅱ 지역 고구려계통 고분¹¹⁰⁾ 등이 발견되어 고고학 기록이 이를 보충해준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흥천 지역 발굴조사 보고서들을 살펴보면 의아한 점이 있다. 211기의 유구가 발견된 대규모 유적인 성산리 유적의 경우 구석기~조선까지 긴 시간의 주거지가 발견되었다. 이 유적에서 철기시대의 유구의 조성연대는 3세기 중~후반, 상한은 2세기 후반~하한 4세기 전 반으로 추정한다. 이후 다음 연대는 통일신라 시기로 7세기 중 후반~10세기의 시간폭을 가졌다고 한다.¹¹¹⁾ 고구려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호현에서 약 4km 떨어진 신장대리에서도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신라 통일기 전후,¹¹²⁾ 통일신라기¹¹³⁾의 유구들만이 조사되었다.

106) 강원고고학연구소, 위의 보고서, 40쪽.

107) 유재춘, 「강원지역 성과유적의 성격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68, 2021, 156쪽.

108) 유재춘, 위의 논문, 2021, 156쪽. 고구려식 산성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문화특집 흥천읍 대미산성은 '고구려 유적'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50947>).

109) 강원문화재연구소, 『흥천 역내리 고분군』,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110) 강원문화재연구소, 『흥천 철정리Ⅱ 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2010.

111) 강원문화재연구소, 『흥천 성산리 유적』 2책, 강원문화재연구소, 2012, 471쪽.

112) 예맥문화재연구원, 『흥천 신장대리 유적』 2, (재)예맥문화재연구원, 2014.

113) 강원고고문화연구원, 『흥천 신장대리 63-15번지 유적』,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7.

이러한 조사 성과들을 고려하면 당시 고구려의 伐力川縣은 지금의 홍천읍이 아닌 두촌면이 중심이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대미산성이 있는 홍천읍 주변은 재지 세력을 통한 간접 지배의 방식을 취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지배방식을 구축해둔 상황에서 고구려가 481년 전쟁에서 패배하고 영서 지역에 대한 지배력이 감소했다면, 이를 이용해서 신라가 홍천 지역 근처로 진출하는 상황을 상정해 볼 수 있다. 관련해서 자비 마립간 14년(471) 모로성 축조 기사와 횡성 읍하리 유적을 주목할 수 있다.

F. 14년(471) 봄 2월에 萁老城을 쌓았다.¹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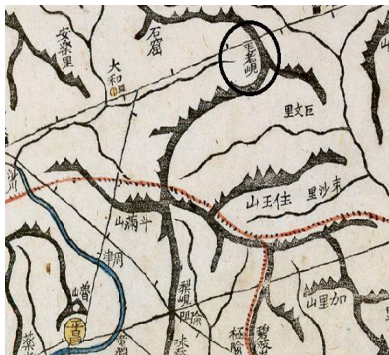
모로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경북 군위군 효령현,¹¹⁵⁾ 보은 관기산성(성미산성)¹¹⁶⁾에 비정하는 연구들이 있었다. 효령현으로 분석한 연구들에 의하면 효령현의 본명인 萁兮縣과 모로성의 음상사가 유사한 점에 주목했다. 그러나 한자가 전혀 다르고 훈음도 같지 않아 다소 의문스러운 추정이다. 보은 관기산성으로 추정한 연구는 보은 마노면의 마노와 모로의 음상사가 유사하다는 점, 삼년산성 축조 바로 다음에 축조 기사가 있음에 주목한 연구이다. 모로성에 대한 연구는 명확한 근거의 부족으로 음상사 이상의 고증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 정도만 가능했다. 그런데 모로성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지명을 대동여지도에서 찾을 수 있다.

114) 『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자비 마립간 14년(471) 2월. 十四年, 春二月, 築萁老城.

115)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羅濟境界考』, 『滿鮮歷史地理研究1-朝鮮歷史地理-』, 1913, 218쪽; 사카이 가이조(酒井改藏), 앞의 논문, 1970, 92쪽.

116) 장창은, 앞의 논문, 2016, 97-98쪽.

〈그림 10〉 대동여지도 모로현



〈그림 11〉 현재 지도상 모릿재



〈그림 10〉과 〈그림 11〉을 살펴보면 평창 대화면 지역에서 모로현(오늘날의 모릿재)을 발견할 수 있다. 모로현에 사용된 한자는 ‘毛老’로 모로성의 ‘菴老’와 매우 유사하다. 이 모로현은 고려시대에 김취려 등이 거란군을 패퇴시킨 장소이기도 하다.¹¹⁷⁾ 또한 영동고속도로와 경강로가 생기기 전에는 평창 진부면과 대화면을 잇는 고갯길이 모로현, 지금의 모릿재길이었다. 강릉에서 대관령을 넘어 진부-대화-방림-안흥을 지나서 횡성에 도착하는 이동로는 고려시대의 역참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이동로이다.¹¹⁸⁾ 이 이동로에서 진부-대화를 연결하는 고개가 모로현이었던 것이다.

신라에서 이 모로현을 하슬라의 서쪽 경계로 삼았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三國遺事』에 따르면 慈藏定律이 강릉군에 水多寺를 창건했다고 한다.¹¹⁹⁾ 기존에는 이 기록에 근거해 수다사를 강릉 부근으로 비정했다.¹²⁰⁾ 그런데 평창군 진부면 수향리의 폐사

117) 『東史綱目』 第10上, 丁丑年 高宗 4년 7월.

118) 정요근, 앞의 논문, 2019, 108쪽 <지도 3> 참조.

119) 『삼국유사』 권5 義解 慈藏定律. 暮年, 謝辟京, 輦於江陵郡 今甯州也. 創水多寺居焉.

120) 여호규, 『한국 고대의 지방도시 -신라 5小京을 중심으로』, 『강좌 한국고대사』7, (재)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2, 136쪽.

지에서 ‘水多寺’ ‘太白谷水多寺’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되는데 이어, 1987년에 ‘大定二十八年戊申三月日造水多寺講堂燭臺重一斤六兩弟子安序’명 촛대부속구가 발굴되었다.¹²¹⁾ 즉 자장이 수다사를 세우던 시기에 평창 진부면은 하슬라에 속해 있던 것이다. 그렇다면 모로현이 하슬라의 서쪽 경계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정이 맞다면 자비 마립간대 신라는 대관령을 넘어 군사 거점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단순 지명의 유사함만을 가지고 모로성을 모로현으로 추정하기엔 근거가 약한 것은 사실이다. 다만 모로성, 호산성 등 자비·소지 마립간대 지명 중 음상사를 통한 추정만 했던 지명 두 곳이 모두 강릉 이서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은 주목해볼 만하다. 다음으로는 횡성 읍하리 유적에 대해 살펴보겠다.

읍하리는 홍천에서 대삼마치, 소삼마치 고개를 넘어 남하해서 지금의 횡성 공근면을 지나 섬강을 따라 남하하면 도착한다. 일반적으로 춘천-홍천-횡성-원주로 이어지는 죽령로에 이 교통로가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읍하리에서 신라 토기로 보이는 대부완 대각이 발견되었다.¹²²⁾ 대부완은 초출 시기가 경주 황남대총 남분과 북분 사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대체로 5세기 중엽을 상한으로 설정할 수 있다.¹²³⁾ 대부완 대각이 한 점만 발견되었기에 신라가 5세기 중후반에 읍하리 지역을 지배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만 이 시기 읍하리 지역에 신라가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는 정도로 해석할 순 있다.

당시 읍하리 지역은 한성백제계의 거주 양식, 묘제를 유지하

121) 신종원, 「평창 수다사지의 문화 유산적 가치」, 『평창 수다사지의 재조명 학술 심포지엄』, 2013(김창석, 앞의 논문, 2017, 17쪽에서 재인용).

122) 예맥문화재연구원, 『횡성 읍하리 유적』 2, (재)예맥문화재연구원, 2019, 109쪽.

123) 박형열, 성화경, 「경주 월성북고분군 출토 대부완의 분류와 편년」, 『영남고고학』 83, 2019, 83쪽.

고 있었다.¹²⁴⁾ 고구려의 지배를 직접 받았다기보다는 영역 내에 포함된 상태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재지 세력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서술했듯이 자비 마립간대 축성한 모로성은 지금의 평창 모릿재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신라가 강릉에서 삼당령을 넘어 정선을 기점으로 남한강 유역으로 진출했듯이 5세기 후반 무렵 신라가 모로성에서 더욱 서진했을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영향권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신라가 진출해오자 읍하리의 재지 세력들이 특별한 저항을 하지 않고 오히려 신라와 교류한 것이 아닐까 추정해본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라의 대부완과 같은 유물도 유통된 것이다.

신라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재지 세력의 선택은 횡성 지역에서 군사적 충돌 없이 군대의 통행을 가능하게 했기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후 신라는 횡성 북쪽의 흥천으로 진출하여 과현, 호산성 등을 신라에서 군사적 거점으로 삼으려고 시도했다. 즉 신라는 5세기 후반 영서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력이 약화되자 남한강 상류 유역뿐만 아니라 대관령 이서로도 진출을 꾀하였다.

다만 이러한 신라의 횡성, 흥천 진출은 이 시기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다. 이 지역에서 신라의 지배체계가 공고해질 경우 춘천-원주-충주로 이어지는 고구려의 교통로가 유지되기 힘들었다. 때문에 고구려에서 신라의 횡성, 흥천 진출을 묵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과현과 호산성을 489년 공격해서 점령하여 신라의 진출을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¹²⁵⁾

124) 예맥문화재연구원, 위의 보고서, 2019, 109쪽.

125) 신라의 흥천 진출이 일시적이었다면 호산성과 같은 성을 어떻게 쌓을 수 있었는가 하는 의문점이 남는다. 이에 대해서는 대미산성에 대한 발굴이 있어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신라가 니하성을 축성한 기간이 길어야 8개월 정도 임을 고려한다면 고구려의 마지막 군사 활동이 기록된 484년부터 호산성 공격이 있었던 489년까지의 5년 동안 축성이 충분히 가능했다고 추정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필자의 추측이므로 각주로 남기겠다.

신라의 입장에서라도 강릉-평창-횡성-홍천으로 이어지는 이동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꾸준한 보급을 통한 군사작전을 펼치기 힘들었을 것이다. 게다가 남한강을 따라 안정적으로 축성을 통한 군사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정선, 영월 지역과 달리 평창, 횡성 지역은 계속 강을 끼고 이동하는 형태가 아니었다. 때문에 고구려의 저항으로 과현, 호산성을 잃자 더 이상의 무리한 진출을 피하지 않은 것이다. 이후 신라는 소백산맥 이서 지역, 남한강 유역에 대한 진출과 지배력 강화를 공고히 하는 방향으로 국력을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 더 이상 과현, 호산성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은데 이는 살수, 모산성 등과는 달리 이 지역들이 고구려, 신라가 꾸준히 격돌한 곳은 아니었다는 방증일 수 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통해 신라가 남한강 유역 이북의 영서 지역에서도 진출을 꾀했을 가능성을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 강원도 지역은 영동은 강릉-양양 사이를 신라, 고구려의 국경지대로 보며, 영서는 정선 지역에서 신라가 진출을 시작했다고 보았다. 그런데 신라가 횡성, 홍천 지역까지 진출을 꾀했다면 북한강 이남의 강원도 지역에서 고구려, 신라의 영향력이 5세기 말 무렵부터 유기적으로 변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진흥왕대 10군 점령 이후에야 강원 영서 지역을 신라가 모두 확보했다는 통설에도 재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한다.

4. 결 론

468년 고구려는 말갈과 연합하여 신라의 실직성을 공격해서 파괴하였다. 고구려·말갈 연합군이 물러나자 신라에서는 지금의 강릉인 하슬라의 사람들을 징집해서 니하성을 쌓았다. 니하의 위치에 대해서는 강릉 연곡천, 남한강 상류 등의 주장이 있었는데 고고학 발굴 성과, 하슬라 동제현의 위치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의 남한강 상류, 니하성은 정선 임계면 송계리 산성으로 비정하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하슬라인들을 니하성 축조에 징집한 이유는 삼척보다 강릉 지역에서 신라의 지배력이 더 강했다는 점과 함께 강릉-삼당령-송계리로의 이동이 삼척-백복령-송계리로의 이동보다 원활했다는 점도 중요하다.

지리적으로 강릉-정선 임계면 지역이 가깝다는 인식이 있었기에 이후 신라의 9주 배치 때 임계면 지역이 명주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신라는 정선 임계면을 시작으로 남한강을 따라 강원 영서 지역으로 진출하였다. 정선 아우라지 유적, 정선 고성리 산성, 영월 정양산성 등이 이 시기 신라가 남한강을 따라 서진했음을 알려주는 유적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실직성 함락 후, 고구려는 백제와의 전쟁에 집중했기에 양국이 다시 격돌한 것은 12년이 지난 480년부터였다. 말갈의 공격을 신호탄으로 481년 고구려·말갈 연합군이 신라의 호명성 등 7성을 함락시키고 미질부성에 도착했다.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고구려군의 이동로에 대해서 경북 북부 설, 동해안 설이 대립했다. 당시 이동로의 거리, 지형, 신라의 방어 체계 등을 분석해보

면 고구려가 정선→삼척 루트를 통해 동해안을 따라 남하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신라, 백제, 가야 3국 연합군에게 패배하고 사망자만 1000여 명에 달하는 대패를 당하였다. 이 전쟁을 계기로 고구려의 강원 영서 지역 군사력과 지배력이 약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구려, 신라의 각축은 소백산맥 서북쪽으로 변화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그런데 489년 고구려가 공격했다는 과현, 호산성에 대한 위치 비정을 해본 결과 홍천 대미산 부근으로 볼 수 있다. 홍천에서 고구려 계통이 유물, 유적이 발견된 지역이 두촌면 지역으로 대미산이 있는 홍천읍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 모로성이 평창 진부면에 위치했을 가능성, 횡성 읍하리 지역에서 신라 토기가 나왔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이 시기 횡성, 홍천읍 지역에 신라가 진출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러한 신라의 대관령 이서 지역 진출은 고구려의 공격으로 과현, 호산성을 빼앗기면서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말았다. 다만 5세기 후반경에 신라가 남한강 영역뿐만 아니라 대관령 이서의 강원 영서 지역에도 진출을 시도했다는 점은 차후 신라의 북방 진출과 관련해서 새롭게 고려해볼 점이라고 판단한다.

〈참고문헌〉

1. 사료

『三國史記』 『大東地志』 『東史綱目』 『東岳先生集』 『新羅東國輿地勝覽』 『輿圖備志』
『玉吾齋集』
『春秋左氏傳』
『日本書紀』

2. 단행본

김기설, 『江陵地域 地名由來』, 인애사, 1992.
김태식 외, 『한국 고대 사국의 국경선』, 서울: 서경문화사, 2008.
김현숙,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서울: 모시는사람들, 2005.
노태준 역, 『손자병법』, 서울: 홍신문화사, 1983.
리지린·강인숙, 『고구려사연구』, 사회과학출판사, 1976.
서영일, 『신라 육상 교통로 연구』, 서울: 학연문화사, 1999.
손영중, 『고구려사』 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이병도, 『韓國史』(古代篇), 서울: 을지문화사, 1959.
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서울: 을유문화사, 1977.
이인철, 『고구려의 대외정복 연구』, 서울: 백산자료원, 2000.
이필영 역, 『(국역) 동악선생집』, 2, 덕수이씨문혜공파종회, 2003
임용한, 『전쟁과 역사』, 서울: 혜안, 2001.
장창은, 『신라 상고기 정치변동과 고구려 관계』, 서울: 신서원, 2008.
장창은, 『고구려 남방 진출사』, 서울: 경인문화사, 2014.
장창은, 『삼국시대 전쟁과 국경』, 서울: 온샘, 2020.
전덕재, 『삼국사기 본기의 원전과 편찬』, 2018, 서울: 주류성.
조이옥, 『統一新羅의 北方進出 研究』, 2001, 서울: 서경문화사.
홍영호, 『新羅의 何瑟羅 經營 研究』, 서울: 경인문화사, 2016.
홍천근, 『2018 홍천군지』 상권, 홍천군청, 2018.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朝鮮歷史地理 I』, 岩波書店, 1964.

3. 연구논문

강민식, “5세기 후반 錦江 유역을 둘러싼 三國의 동향”, 『한국고대사 탐구』 6(2010)

<http://doi.org/10.35160/sjekh.2010.12.6.93>

강민식, “5세기 후반 삼국의 전투와 대치선”, 『군사』 87(2013)

<http://doi.org/10.29212/mh.2013..87.213>

김병남, “496년 고구려의 우산성 공격 의미와 나제의 대응”, 『전북사학』 56(2019).

김영하, “新羅時代 巡守의 性格”, 『민족문화연구』 14(1979)

<http://uci.or.kr/G701:A-00049290933>

김재완, “19世紀末 洛東江流域의 鹽 流通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김정배, “高句麗와 新羅의 영역문제 -順興地域의 考古學 자료와 관련 하여”, 『한국사연구』 61·62(1988)

<http://uci.or.kr/G706+NLKF02-F.oaiInfo.CNTS-00006978875>

김진한, “6世紀 前半 高句麗의 政局動向과 對外關係”, 『군사』 64(2007)

<http://doi.org/10.29212/mh.2007..64.103>

김창석, 「7세기 신라 州의 성격 변화와 수취 -溟州와 朔州를 중심으로-, 『百濟文化』 56(2017)

<http://doi.org/10.35300/bjclab.56.0.201702.5>

김택균, “東濊考-江陵 濊國說과 관련하여-”, 『강원문화연구』 16(1997)

<http://uci.or.kr/G901:A-0001183099>

김현숙, “4~6세기경 小白山脈 以東地域의 領域向方 - 『三國史記』 地理志의 慶北地域 ‘高句麗郡縣’을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26(2002)

<http://uci.or.kr/G901:A-0001661552>

김현숙, “삼국사기 안동 지역의 역사”, 『고대 안동의 역사와 문화』, 인동사, 2009.

- 나동욱, “7세기 중반 高句麗의 東蒙古 進出과 軍事戰略”, 『한국사연구』 144(2009)
<http://uci.or.kr/G704-000361.2009..144.002>
- 민덕식, “鎭川 大母山城의 分析的 研究”, 『한국사연구』 29(1980)
<http://uci.or.kr/G706+NLKF02-F.oaiInfo.CNTS-00006978504>
- 박노석, “삼국시대 실직과 하슬라의 위치 이동”, 『진북사학』 35(2009)
<http://uci.or.kr/G704-002047.2009..35.010>
- 박경철, “中原文化圈의 歷史的 展開 -그 地政學的·戰略的 位相 變化를 中心으로-”, 『선사와 고대』 15(2000)
<http://uci.or.kr/G701:C-00045807214>
- 박경철, “麗羅戰爭史의 再檢討”, 『한국사학보』 26(2007)
<http://uci.or.kr/G701:C-00056344812>
- 박성현, “5~6세기 고구려·신라의 경계와 그 양상”, 『역사와 현실』 82(2011)
<http://uci.or.kr/G704-000054.2011..82.016>
- 박수영, “江陵 草堂洞 三國時代 遺構와 遺物에 대한 小考”,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2009.
- 박형열, 성학경, “경주 월성북고분군 출토 대부완의 분류와 편년”, 『영남 고고학』 83(2019)
<http://doi.org/10.47417/yar.2019.83.61>
- 서경민, “5~6세기대 안동지역 세력의 구성과 그 동향”, 『한국고고학보』 83(2012)
<http://uci.or.kr/G704-000699.2012..83.002>
- 서병국, “新唐書渤海傳所載 泥河의 再檢討”, 『동국사학』 15-16(1981)
<http://uci.or.kr/G701:A-00054395396>
- 서지영, “5~6세기 영주·순흥 재지세력의 동향”, 『대구사학』 120(2015)
<http://uci.or.kr/G701:A-00054395396G704-000893.2015.120..012>
- 양기석,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신라 서원소경 연구』, 서경문화사, 2001.

- 양시은,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방식에 대한 검토”, 『고고학』 9-1(2010)
<http://uci.or.kr/G704-002037.2010.9.1.002>
- 양태진, “高句麗 嶺土 연구 -三國史記를 중심으로-”, 『군사』 18(1989)
<http://uci.or.kr/G901:A-0000772001>
- 여호규, 「한국 고대의 지방도시 -신라 5小京을 중심으로」, 『강좌 한국 고대사』 7, (재)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2002.
- 유재춘, “강원지역 성곽유적의 성격에 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68(2021)
<http://doi.org10.33252/sih.2021.3.68.141>
- 윤성호, “新羅의 漢江流域領域化過程研究”, 고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7.
- 윤성호, “5세기 중후반 신라 소지마립간대의 대고구려관계”, 『한국학논총』 51(2019a)
<http://doi.org/10.25232/ku.2019.51.1>
- 윤성호, “5세기 중후반 신라의 소백산맥 이서 지역 진출”, 『전북사학』 55(2019b)
<http://doi.org/10.28975/jha.2019.03.55.025>
- 윤성호, “삼국시대 비열홀 지역 관방시설 연구”, 『백산학보』 121(2021)
<http://doi.org/10.52557/tpsh.2021.121.225>
- 이도학, “新羅의 北進經略에 관한 新考察”, 『경주사학』 6(1987)
<http://uci.or.kr/G701:C-00056342882>
- 이명식, “5세기 新羅의 對高句麗關係”, 『대구사학』 69(2002)
<http://uci.or.kr/G704-000893.2002.69..010>
- 이부오, “5세기 후반 신라의 소백산맥 서쪽 진출과 지배형태”, 『신라사 학보』 10(2007)
<http://uci.or.kr/G701:A-00123896817>
- 이상수, “考古資料를 통해 본 悉直國”, 『이사부와 동해』 8(2014).
- 이성주·강선옥, “草堂洞遺蹟에서 본 江陵地域의 新羅化 過程”,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2009.

- 이성주 · 김라희 · 이지윤, “영동과 영서지역의 신라화와 물질문화 변동”, 『신라문화』 60(2022)
<http://doi.org/10.37280/JRISC.2022.6.60.61>
- 이창현, “江陵地域의 新羅化 過程: 古墳資料를 中心으로”, 『문화사학』 25(2006)
<http://uci.or.kr/G901:A-0002209388>
- 임기환, “고구려본기 전거 자료의 계통과 성격”, 『한국고대사연구』 42(2006)
<http://uci.or.kr/G704-000848.2006..42.008>
- 장창은, “新羅慈悲~炤智王代築城·交戰地域의 검토와 그 의미”, 『신라사학보』 2(2002).
- 장창은, “고구려의 한성 공격과 한강 유역 지배”, 『서울 2천년사 6-삼국의 각축과 한강』, 서울역사편찬원, 2015.
- 장창은, “나·제동맹기’ 신라와 백제의 국경선 변천”, 『한국학논총』 45(2016)
<http://uci.or.kr/G901:A-0003916611>
- 전덕재, “新羅의 東北地方 國境과 그 變遷에 관한 고찰”, 『군사』 91(2014)
<http://uci.or.kr/G901:A-0003566394>
- 전덕재, “신라의 북진과 서북 경계의 변화”, 『한국사연구』 173(2016)
<http://uci.or.kr/G704-000361.2016..173.004>
- 전덕재, “4~7세기 백제의 경계와 그 변화”, 『백제문화』 58(2018)
<http://doi.org/10.35300/bjclab..58.201802.79>
- 전병우, “494年 ‘薩水’ 別館 戰鬪와 政勢變化”, 『진단학보』 134(2020)
<http://uci.or.kr/I410-ECN-0101-2020-905-000881621>
- 정영호, “高句麗의 錦江流域進出에 대한 小考”, 『산운사학』 3(1989)
<http://uci.or.kr/G901:A-0000759299>
- 정요근, “高麗·朝鮮初의 驛路網과 驛制 研究”,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2008
- 정요근, “고려~조선 시대 강원 지역 역 분포와 영서 북부 지역 간선 교통로의 변화”, 『강원사학』 32(2019)
<http://doi.org/10.31097/KHR.2019.32.04>

- 정운용, “5世紀 高句麗勢力圈의 南下”, 『사총』 35(1989).
- 정호섭,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4-5세기의 기록에 대한 검토”, 『신라 문화』 38(2011)
<http://uci.or.kr/G704-001251.2011.38..003>
- 최준경, “5세기말엽~7세기중엽 삼국통일을 위한 고구려의 남방진출연구”, 『고구려사연구론문집(2)』, 사회과학출판사, 2005.
- 홍승우, “4~6세기 신라의 동해안 지역 진출과 지방 지배방식”, 『4~6세기 영남 동해안 지역의 문화와 사회』, 동북아역사재단, 2009.
- 홍영호, “三國史記 所載 泥河의 위치비정”, 『韓國史研究』 150(2010)
<http://uci.or.kr/G704-000361.2010..150.007>
- 홍지윤, “新羅의 中原地域 進出에 대한 考古學的 檢討”, 『한국사연구』 175,(2016),
<http://uci.or.kr/G704-000361.2016..175.009>

쓰다 소키치(津田左右吉), 「羅濟境界考」, 『滿鮮歷史地理研究1-朝鮮歷史地理-』, 1913

사카이 가이조(酒井改藏), “三國史記の地名考”, 『조선학보』54(1970).

4. 발굴조사보고서

강원고고학연구소, 『홍천 대미산성 지표조사 보고서』, 홍천문화원, 1997.

강원고고문화연구원, 『홍천 신장대리 63-15번지 유적』,

(재)강원고고문화연구원, 2017.

강원문화재연구소, 『홍천 역내리 고분군』, 강원문화재연구소, 2005.

강원문화재연구소, 『정선 고성리산성』, 2006a

강원문화재연구소, 『정선 송계리산성』, 2006b.

강원문화재연구소, 『정선 임계리 고분군』, 2007.

강원문화재연구소, 『홍천 철정리Ⅱ 유적』, 강원문화재연구소, 2010.

강원문화재연구소, 『홍천 성산리 유적』 2책, 강원문화재연구소, 2012.

예맥문화재연구원, 『홍천 신장대리 유적』 2, (재)예맥문화재연구원, 2014.

예맥문화재연구원, 『횡성 읍하리 유적』 2, (재)예맥문화재연구원, 2019.
차용걸 외, 『청원 I.C~부용간 도로공사구간 내 淸原 南城谷 高句麗遺蹟』,
2008, 중원문화재연구원.
충청문화재연구원, 『大田 月坪洞山城』, 2003.

5. 기타

구글어스(<https://earth.google.com/web>), (2023년 6월 23일)
대동여지도(<http://kyuhgis.snu.ac.kr/>), (2023년 6월 23일)
네이버지도(<https://map.naver.com/v5/>), (2023년 6월 26일)
일제강점기 지형도
(https://db.history.go.kr/hgis/mod_g1/main.do),
(2023년 6월 26일)
지역N문화(<https://ncms.nculture.org/castle-road/story/2078>),
(2023년 6월 23일)
[문화특집] 홍천읍 대미산성은 ‘고구려 유적’, 『천지일보』, (2021년 4월 19일),
(<https://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850947>), (2023년 7월 1일)

(Abstract)

The War between Silla and Goguryeo in the 460s to 480s and the Expansion into the Gangwon Yeongseo Region

Koh, Chang-Min

Between 460 and 480, the focus was on analyzing the battles in the Yeongseo and East Coast regions of Gangwon Province for Goguryeo and Silla. While various research results have emerged about the wars of that time, there were issues such as the lack of clarity regarding the positioning of the Jeongseon-Samcheok connection or the locations of Gwahyeon and Hosanseong, which appeared in the war of 489.

Examining the areas of Jeongseon, Samcheok, and Gangneung, it was argued based on geographical and historical analysis of the Goryeo and Joseon eras that movement from Gangneung to Jeongseon was smoother than from Samcheok to Jeongseon. It was found that the movement from Gangneung to Jeongseon was smoother than from Samcheok to Jeongseon. Silla attempted to expand along the Namhangang River towards Jeongseon and Yeongwol. The route taken by Goguryeo in the 481 attack on Silla was along the coast. Goguryeo's defeat weakened its control in Gangwon Province.

Based on historical and archaeological evidence, Hongcheon was estimated to be the location of Hosanseong attacked by Goguryeo in 489. Considering the the discovery of late 5th-century Silla pottery in Hyeongseong and the possibility of Moroseong being identified as Pyeongchang Morohyeon, it was argued. As Goguryeo's influence in the Gangwon Province region weakened due to the war of 481, Silla attempted to expand towards the Daegwallyeong Iseo area. Goguryeo attacked and occupied Gwahyeon and Hosanseong to address potential control issues along the Chuncheon-Hongcheon-Wonju route due to Silla's expansion. However, the challenging terrain and transportation hindered Silla's long-term expansion,

Silla's attempts to expand into the Yeongseo region from the northeastern region of the Namhangang River indicate changes in control and the political situation in Gangwon Province from the late 5th century. These findings raise considerations for Silla's future expansion in the region.

Keywords : Silla, Goguryeo, War, 5th century, Gangwon-do, East Coast, Hongcheon, Niha(泥河), Hosanseong(狐山城)

